

해외 진출, 글로벌 인력 관리까지 준비되셨습니까?



해외사업 확대와 함께 커지는
해외주재원 세무·보상 이슈



관행 중심 운영이 아닌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해외사업은 준비했지만 해외파견 인력관리까지 점검하셨나요?

해외법인 설립, 현지 영업, 생산거점 확대와 함께
해외파견 인력의 세무·보상 관리도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본국 및 파견국
소득세 신고 의무



국가별
사회보장제도 대응



해외주재원
보상체계 운영 기준



세금보전정책 설계



해외주재원 관리 체계는 기업의 비용과 리스크를 좌우합니다.

대기업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해외사업 규모와 관계없이
해외파견 인력이 있다면 점검이 필요합니다.

- 
- ❗ 본국 및 파견국 소득세 신고 누락 가능성
 - ❗ 주재원 간 보상 형평성 이슈
 - ❗ 세금보전 정책 적용 기준 혼선
 - ❗ 해외법인 및 본사 간 비용 정산 문제
 - ❗ 실무 담당자의 관리 부담 증가

관행이 아닌 원칙 기반의 관리체계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중요한 것은 관리 기준을 세우는 것입니다.



해외파견 인력 관리는 사후 대응보다

사전에 원칙과 운영 기준을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무·보상 정책 수립

본국 및 파견국 소득세 신고 및 사회보장 대응 기준 정립

본사와 해외법인 간 역할과 책임 명확화

일관된 운영 프로세스 구축

관행이 아닌 기준이 글로벌 인력 관리를 완성합니다.

글로벌 수준의 해외파견 인력관리, Deloitte와 함께 준비할 수 있습니다.

- ✓ 해외주재원 세무관리 체계 진단
- ✓ 해외파견 세금보전정책에 대한 자문
- ✓ 한국 및 파견지국 신고의무 이행 지원
- ✓ 해외주재원 운영에 대한 개선방안 제시
- ✓ 해외법인 및 주재원 커뮤니케이션 지원

Deloitte.

150여 개 국가, 7,000여 명의
GES 전문가 네트워크